

# 목포시,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안전손수레 안전장비' 보급

### 122명에 브레이크·경광등 안전장치 장착...1/3 무게 줄여 안전화·장갑·야광조끼 등 제공...추가 100여대 보급 예정

목포시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 122명에게 '안전손수레 및 안전장비'를 보급했다. 손수레는 재활용 수집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퍽크 타이어가 장착됐고, 알루미늄 프레임 사용에 무게가 기존의 삼분의 일 수준인 20kg으로 낮춰 제작됐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가 장착되고, 전자벨·경광

등이 부착됐다. 또한 어르신들이 목포시 구석구석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점을 감안해 안전손수레에 탄소중립과 재활용 등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문구를 손수레에 게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과 새벽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안전화,

안전장갑, 야광조끼 등을 보급했다. 안전손수레 제작은 폐기물처리부담금 징수교부금을 활용한 전남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30대분 1억1,615만원이다. 시는 우선 1차로 122대를 보급하고 앞으로 100여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손수레가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수레 제작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안심하고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기자



## 영암군, 한국농촌지도자영암군연합회 회원 배가운동 '대상' 수상

### 전년 대비 45% 증가시켜 회원 수 1천 명 회원 돌파



지난 3월 25일 한국농촌지도자회영암군연합회(회장 김강식)가 농촌지도자회원 배가운동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영암=조대호기자

영암군농촌지도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배가 운동에 매진한 결과 회원 수를 전년 대비 45% 증가시켜 1천 명 회원을 돌파하며 농업인단체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농촌지도자회는 우애·봉사·창조의 정신으로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소임을 수행도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농업·농촌 선진화를 위해 선두에서 활동하는 농업인 학습단체이다. 연합회장은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도록 지원하고 격려해준 모든 분과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역사회의 선배로서 청년 농업인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신안군, 임산물 불법채취·불법 산림훼손 집중단속

### 내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임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받지 않은 산림훼손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차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안에 산림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없는 청정 신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이력주기자

## 영광군 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 175명 2억원 지원...4월 20일까지 접수

영광군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영광인재육성장학금 지원대상자 총 175명을 선발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과 국내 대학 재학생 및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관내 학교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인 교사이다.

지원금은 초등학교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교생 80만원, 교사 100만원이며 대학생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초·중·고등학교생과 교사의 경우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대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4.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는 인재육성실무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기자

## 무안군, 생명사랑 약국사업 협약 체결

### 현대약국·마음편한약국·도담약국 등 3곳...더 많은 약국 참여 독려

무안군은 최근 관내 약국 3곳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대응을 위한 2022년 생명사랑 약국사업 협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명사랑 약국사업은 자살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울감 해소와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약국 10곳이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에는 현대약국, 마음편한약국, 도담약국 3곳이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무안=이기성기자

현재 무안군 관내에는 약국 38곳이 운영 중이며, 군은 지금까지 34%의 약국만이 생명사랑 약국사업에 동참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약국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안진화 건강증진과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태여서 자칫 우울감에 휩쓸려 하는 대상자들이 외면당할 수 있다"며 "주변 이웃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함평군 "인구감소·지역소멸 막아라" 대응기금 확보 박차

함평군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전략수립에 나섰다. 함평군은 29일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 사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기금 확보를 위해 군은 지난 28일 1단계로

이비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실무 전담 팀을 구성하고 부서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어 2단계로 실무 전담 팀과 유관기관, 중간지원조직, 군민참여단, 지역전문가 등 군 전체를 아우르는 지방소멸대응 추진협의체를 구성, 함평 맞춤형 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함평=김광춘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